

다자이후 텐만구의 축제와 의식

축제는 일본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행사로서 대부분 일본의 사원이나 신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자이후 텐만구에서는 매년 100 개가 넘는 축제와 제사가 행해지며 많은 사람들이 참가합니다.

다자이후 텐만구에서 열리는 의식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진코시키(스가와라 미치자네의 대행렬)는 1853 년에 제작된 두루마리에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텐진’이라고 불리는 스가와라 미치자네의 신령을 미코시(신을 태운 가마)에 태워 미치자네가 말년을 보낸 옛 저택터에 세워진 에노키샤로 옮긴 후,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다자이후 텐만구로 다시 보냅니다. 이 행사에서는 수 백 명의 사람들이 헤이안 시대(794-1185)의 의복을 입고 경내를 돌아다니는 미코시와 동행합니다.

1 월 초에 열리는 우소카에(피리새를 교환하는 축제) 또한 다자이후 텐만구의 유명한 행사입니다. 빼곡히 들어선 군중은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 늦은 밤 어두컴컴한 곳에서 나무로 조각한 피리새를 서로 교환합니다. 나무로 조각한 피리새의 바닥에 쓰여진 글자에 따라 순금 피리새로 교환할 수 있으며, 내년에는 반드시 행운이 찾아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로 북적이는 다자이후 텐만구에는 200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도를 올리며, 다가오는 한 해를 위한 부적을 찾아 이곳을 방문합니다.